

채만식의 『금의 정열』을 읽고

조남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채만식(蔡萬植)의 『금(金)의 정열(情熱)』은 『매일신보』에 1939년 6월 19일부터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연재되었던 장편소설이다. 이미 『금의 정열』 이전에 나온 작품들을 통해 채만식은 많은 어휘의 구사력, 다종다양한 수사법, 정확성과 묘미를 자랑하는 문장력 등을 과시한 바 있다. 이런 특징들은 일제 강점기라는 어려운 시대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데서 맺어진 결실이기도 하다. 그는 해학이니 풍자니 하는 ‘뒤틀린’ 인식으로 고난의 현실을 한 장 한 장 ‘뚝바로’ 넘길 수 있었다. 단편이건 장편이건 채만식의 소설들은 산문의 표현 방식의 적절한 실례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어 왔다. 채만식의 소설은 오늘날의 우리 작가들이 국어에 대한 본질적 무관심, 어휘의 빈곤, 수사법의 제한, 부정확한 서술 방법의 노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각시켜 준다. 오늘날 일상어의 절대량이 줄어 들고 있는 것처럼 소설어도 줄어 들고 있다. 소설어의 증대가 일상어의 감소를 막아 내는 한 방안이라는 명분이 성립되려면 최소한의 소설 독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태평천하』, 『탁류』 등의 장편소설과 마찬가지로 『금의 정열』은 작가의 국어 사용 방법의 충실한 사례집이라고 할 수 있다. 금광 열풍에 휩싸였던

1930년대 한국사회의 풍경과 초상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금의 정열』에서는 국어대사전이라든가 방언사전이라든가 속어사전 등의 도움을 빌려야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나 어구들이 실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요량장을 대다, 염량빠지다, 머리가 없다, 중관을 메다, 입구구를 댄다, 오같이 들다, 혈수할수없다, 심청이 나다’ 등과 같은 말들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켜 주며 ‘뽕실뽕실, 초군초군, 가뜩가뜩, 말긋말긋, 포실포실, 모착모착, 절금절금, 덩적덩적, 허벅허벅, 승얼승얼, 트작타작, 푸뜩푸뜩, 지벅지벅, 쓸쓸히’ 등과 같은 부사어들은 채만식 소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든다. ‘고괘, 건짐작, 육장, 가시버시, 터수, 알짬이 등과 같은 명사들, 숫보기, 허릅송이, 거랑꾼, 피자기, 백피난봉, 애기괘’ 등과 같은 인간형을 가리키는 언어들, ‘왕청되다, 뇌꼴스럽다, 벌쫘하다, 기이다, 시뜻하다, 똥기다, 기물스럽다, 실토정하다, 지부럭거리다, 똥기다’ 등과 같이 상태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들은 채만식 소설의 풍부한 어휘량을 짐작하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군장(장단), 답새다(때리다), 대근하다(견디기 힘들다), 되거리(되넘기기), 허정(기갈)’ 등과 같은 방언도 나오고 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는 좀처럼 언어 듣기 힘든 이러한 말들이 문맥적 의미를 얻게 된 용례를 살펴 보자.

굳이 그것을 타자고 한 시간씩이나 넘겨 지저분한 대합실 구석에서
파리떼를 동무 삼아 곱다시 기다리고 앉았을 머리가 없었던 것이다.

‘곱다시’는 ‘그대로’, ‘고스란히’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머리가 없다’는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고스란히 앉았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과 채만식의 소설에서 이미 ‘곱다시 앉았을 머리가 없었던 것이다’로 표현된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후자가 좀더 부드러운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 답지 않게 여자를 대하여 부끄러움을 탈 숫보기거나, 그래서 오
같이 들거나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사랑스러

위서——차라리 이것 때문에 아닐는지 모른다.

‘숫보기’는 약삭빠르지 않은 순진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숫총각이나 숫처녀로 대치할 수 있다. ‘오갈이 들다’는 식물의 잎이 병이나 열 때문에 시들어 오글쭙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숫보기’는 ‘숫총각’으로, ‘오갈이 들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눅들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면 의미는 별 차이없이 전달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분명히 뉘앙스는 다르다. ‘숫보기’에는 약간의 익살과 비꼬는 맛이 깃들어 있다. 채만식은 소설에서 단어 하나 하나를 사전적인 뜻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구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내는 것을 의도하였으며 가끔적이면 맛깔스럽게 표현하려고 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시 쓰듯이 소설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운식에게 해주 아씨의 인상은, 익다익다 못해 절로 떨어지려고 하고 허벅허벅한 과실과 같은 것이었었다>라는 문장에서 ‘허벅허벅’은 잘 익은 사과나 삶은 고구마나 감자처럼 물기가 적고 끈기가 적고 푸석푸석한 모양을 가리킨다. ‘허벅허벅’이란 말을 안 쓰면서 해주 아씨를 묘사했다더라면 지면이 보다 많이 낭비되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선택된 단어 하나는 장황한 설명을 대신해 낼 수 있다.

순범은 속으로는, 역시 그 사람네 여자답게, 그리고 여관 하녀답게, 그러한 정도의 친절인 것을 갖다가, 저 염량 빠진 위인은 저한테 무슨 탄 의사가 있는 걸로 혼자 옥구구를 대는 속이거니 하고, 아까부터도 우습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시방 지부럭거리게 구는 것도 다직해야 속이나 떠보자는 장난이지, 괜한 농담인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염량 빠진’, ‘옥구구를 대는’, ‘지부럭거리게’, ‘다직해야’ 등은 국어 대사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염량 빠진’은 온냉, 선악, 시비 등을 분별해 내는 슬기가 없는 것을 말하

며 ‘옥구구를 대다’는 ‘옥셈을 대다’와 같은 말로 잘못 계산하여 자기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부럭거리다’는 객쩍은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귀찮게 구는 것을 뜻한다. ‘다직해야’는 ‘기껏해야’로 풀 수 있다. 귀찮기는 해도 국어대사전을 들추어 보면 이 인용문의 전체 맥락은 다 꿰뚫게 된다. 얼마나 재미있고 알찬 표현인가. 이 인용문 하나만 보아도 『금의 정열』은 국어의 창고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끝내 부분불통으로 놓아 둘 수밖에 없는 대목도 간간이 나타난다.

그러나 속으로는 제발 잔상이 보배더라고, 담배까지 곁들인 이 조그마한 가게를 지니고 앉아서, 말치없이 조금씩 벌어 즐락히 먹고 불안 없는 세상을 살아 가기가 간절한 소원이었었다.

그러자, 오늘 새벽에는 고산골에서 분광을 하면서 물건을 대고 하느라고 역시 뉘통속인 문서방이, 그 신문을 쥐고 부엌에 쫓아 들어 왔었고 한 것을, 그는 계제가 좋을 성싶어, 없는 강단을 쥐어짜 겨우 한두 마디 이 노릇을 그만 두자는 의사를 비춰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눈이 빠지게 지천을 먹은 것 밖에는 아무 소득도 없고 말았던 것이다.

위의 글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강단을 쥐어 짜’, ‘뉘통속’ 등으로 그 정확한 뜻을 찾을 길이 없다. ‘부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로, ‘지천을 먹은 것’은 ‘야단을 맞은 것’으로, ‘말치없이’는 군말이나 뒷말이 없이로 바꾸면 된다. ‘말치없이’의 줄인 말인 ‘말치없이’는 채만식의 애용어의 하나이기도 하다. 장편 『태평천하』에도 나타나고 단편 「빈, 제일장 제이과」에도 나타난다. 『태평천하』에서는 <윤직원 영감은 제가 그대로 병통없이 말치없이 자기 종신토록 자알 살아만 주면 마지막 임종에 가서, 그 집하고 또 땅이나 벼 백석거리하고 떼어주어, 뒷고생 앓게시리 해주려니, 이쯤 속치부를 잘 해두었었습니다>와 같은 예문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채만식이라고 어휘를 사전에 정리된 의미 쪽으로만 쓴 것은 아니다. 사전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있게 쓴 것도 눈에 뜨인다. <아따 체엔장! ——거 자네두 복받을려거든 사람이 제발 좀 더 덤적덤적하래두 그래 싸아! ——> (281) 했을 때의 ‘덤적덤적’은 털털해지거나 대범해지라는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덤적덤적’의 사전적 의미는 ‘걸핏하면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채만식이 생각했던 의미가 사전적 의미와는 반대로 나간 셈이다. 채만식은 우리말의 발골과 보존에 큰 기여를 한 작가이니 만큼 사전적 의미를 뛰어 넘어 자의적으로 국어를 사용한 경우를 꼬박꼬박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윤식은 계집을 작별하고, 폭양이 쬐는 거리를 절름절름 도서관 앞을 지나서 전매국 옆으로 나섰다>에서의 ‘절름절름’도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금의 정열』은 채만식이 형들을 따라 금광에 투신했던 경험을 살려 쓴 것인 만큼 금광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닥에 깔고 있다. 실제로 이 소설은 ‘광구, 수굴, 트렌치, 보링, 물목, 분광, 청부꾼, 덕대’ 등과 같은 금광의 구조, 가격, 작업내용,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금광에 관련된 전문용어라든가 경제에 관계된 용어들이 더러 나오기는 하지만 이 작품 속의 단어들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생활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라는 성격을 지닌다.

채만식의 서술방법 상의 특징의 하나로 장문주의와 묘사주의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청년 금광 줄부인 주상문이 동생이 문학공부하러 동경으로 떠나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민 저 고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대목은 한 문장이 반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길게 처리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한 문장이 반 페이지나 될 정도로 긴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장문은 작가가 작중 인물의 속을 이리 헤집고 저리 쑤시고 하면서 얼른 끊어 내지 못한 채 질질 끌거나 서술내용들을 포개거나 한 데서 나온 것이다. 채만식은 장문주의를 지키든 묘사주의를 지키든 ‘뒤틀어 보기’의 방법에 자주 의지하는 버릇이 있다. 채만식 특유의 짠맛이 갖든 묘사주의의 한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파리가 피건, 늪은 더부살이가 바닥을 비질하느라고 먼지를 일으키

건, 누더기가 우레같은 코를 골건, 아이놈의 손톱밑의 땀국과 눈곱이 방금 아지노모도 대신을 하건 다 상관할 바 없고, 상문은 10전 어치 우랑과 혀밑을 걸들인 30전 짜리 맛보기에다가 거친 고춧가루를 한 손갈 듬뿍, 과양념은 두 손갈, 소금은 반 손갈, 후추까지 골고루 쳐 가지고는 휘휘 저어서, 우선 국물을 걸쩍하니 후루루후루루-----

술로 밤새도록 간을 친 속이니, 얼큰한 그 국물이 비위에 썩 받기도 하겠지만, 본디 또 식성이 그렇게 복성스러운지 모른다.

이 문장은 주상문이 간밤에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날 해장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대목이다. 반복법, 과장법, 의성법 등에다가 골계미를 섞어 놓은 묘사적인 장문이다. 묘사적인 장문은 우리말에 대한 뛰어난 구사력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말 하나하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쯤되면 작가는 민족어의 파수꾼이라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채만식은 동시대인들이 쓰는 말의 질량을 소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이 '써야 할' 말의 질량을 제시한 셈이다. 작가는 작품 한 편씩 쓸 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기존 국어사전에 대폭 추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서사적인 장문을 보기로 하자.

멀리 몇십만 년 전 우리네 사람의 조상이라던 원인(原人 : 그 성성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생긴) 하이델베르크인이나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한 방울 여태껏 인류의 혈관 속에서 지워지질 않고 처져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하필 이십세기의 오늘날에야, 저 구석진 조선땅 장단(長湍)고을, 어떤 김씨네 집안의 자손 가운데, 그나마 남자도 아니요 한 처녀의 몸에 가 심술긋게도 그 문명치 못한 혈통이 유전되어 가지고, 그만해도 야속하다 하겠거늘, 다시 그 처녀가 송도 땅의 박정현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자, 개개 일자로 모친의 그렇듯 원시적인 얼굴을 사진 찍은 듯이, 울레줄레 오남매가 죄다 하

이텔베르크인이 아니면 네안데르탈인의 탈을 쓰고 출생을 했으니
 ——정말 그것이 유전의 탓이라고 한다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의
 죄도 이만 저만하지 않은 물건이라 할 것이었다.

교사였다가 금광꾼으로 돌아 선 박정현의 4남 1녀가 한결같이 성성이처럼 못 생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나 긴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고 감칠맛 나는 표현인가.

『금의 정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가를 닮아서 그런지 대체로 입심이 좋고 익살맞은 표현을 잘 쓴다. 채만식은 기본적으로 전지자적 서술방법을 써서 어떤 인물의 내면이든 또 아무 때라도 들어 가는 버릇이 있다.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표현들은 이러한 버릇의 산물이다.

- (가) “옛날엔 미두가 촌사람네 선영백골을 모두 물어 가더니, 시방은 또——”
 (나) “제엔장, 기집의 터럭 하나가 코끼리를 넉넉 달아 올린다더니, 끽”
 (다) 물론 빈민촌이요, 말하자면 개성부의 몸피가 붙느라고 가 변두리를
 먹어나가는 잠식작용의 선발대들인 것이다.

(가)문의 말줄임표는 ‘금광바람이니’라는 말을 감추고 있고 (나)문은 과장법을 쓰기는 했지만 조금도 거북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다)문의 경우, ‘잠식작용의 선발대’라는 표현이 참신하게 다가 온다.

이처럼 채만식은 한국어를 능동적으로 개성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소설은 날카로운 담론, 재미있는 담론, 알미운 담론, 기발한 담론임을 입증해 줄 수 있었다.